

Monfalcone-Villorba. Legnago Shopping Malls

Gabbiani & Associati

글: 자료 제공 가비아니 & 여소시아티

Written material provided by Gabbiani & Associati

몬팔코네·빌로르바·레나고 쇼핑몰 _ 다음 이 세 프로젝트는 대형 할인점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식 쇼핑센터를 이탈리아인들의 취향에 맞게 개발한 것으로, 6,000~10,000m² 부지에 중소 규모 상점들이 회랑을 형성하며 자리한다. 몬팔코네와 빌로르바의 쇼핑몰은 교외에 자리하고 있는 반면 레나고의 쇼핑몰은 유서 깊은 도심 근교에 있다. 우리는 시설 설계자, 구조 전문가와 같은 외부 컨설턴트들과 협력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세 프로젝트의 공통 목표는 지붕 아래 회랑을 즐거운 산책로로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연광, 보온재, 다양한 형태의 통로를 섬세하게 활용했다.

1. 쇼핑몰과 환경: 우리는 환경적인 측면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건물 주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통량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부지 대부분을 격자형 재료로 포장해 대지의 투과성을 높였다. 야외에 자리한 나무와 자생식물들은 군데군데 그늘을 제공하며 도시의 허파가 되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2. 지역사회·재료·채광: 오랫동안 이탈리아의 도시문화는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하는 크고 작은 도시 수백 개를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 이러한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은 안락함과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현대 상업 공간에서는 유통 계획을 통한 가격 절감, 특히 자동차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심 쪽은 주차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탈리아의 역사 도심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도심이 줄 수 없는 서비스가 추가된 새로운 사회적 집합의 중심을 창출하려 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쇼핑몰의 회랑과 상점은 상업 도시의 거리 풍경을 구성한다. 건물 내부의 채광 상태가 우수해 빛을 적당히 차단하고 여과하면 1년 내내 안락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낮 동안 통로에는 조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햇빛이 환하게 들어온다. 이것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추운 북부 이탈리아 기후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고려한 채광 체계다.

3. 왜 목재를 사용할까?: 쇼핑몰에는 강철, 크리스털, 알루미늄, 콘크리트, 사기 타일과 같은 현대건축의 일반적인 재료들은 물론 목재 보, 대리석, 자연 석과 같은 지역 특유의 친숙한 자연 재료들 또한 사용했다. 그중 목재는 방문객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친근한 재료로 이것은 현대적인 설계 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건축 양식-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도심 지역

의 현관-을 연상시킨다. 이 지역에서는 상업 활동이 시작된 이래 목재 보를 사용하는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붕 등 건물의 목재 부분은 이탈리아인뿐만 아니라 타국의 방문객들로 하여금 공간에 대한 안락함을 느끼게 한다. 형태·기술·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는 극도의 우아함을 추구했으며, 라멜라 기술(lamella technology)을 통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뒀다. 우리는 해당 재료의 가벼운 성질과 최대 지지력(supporting capacity)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대해 고민했고, 이러한 사고를 통해 재료 자체의 운송은 더욱 용이해졌다. 또한 목재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감안해 생체에 적합한 보호재와 적층재를 사용한 반면 화학 용제의 사용은 극도로 제한했다. 이 세 프로젝트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하고, 목재의 원산지와 생산 주기를 보증하는 공급 업체들과 거래해 품질을 높였다. 유리창에는 자외선이 나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기술을 적용했다.

